

불교·기독교 교수들 '종교 권력' 을 말한다

제3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4월 9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술렁인다. 정치인들이 종교계 인사를 찾은 것은 이제 선거철 뿐 아니라 수시로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거꾸로 인사만 받던 종교집단이 정치세력의 구제화를 위해 총선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개신교와 통일교가 각각 기독교당과 가정당을 통해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사업으로 유명한 종교인은 여당의 비례대표 1순위에 올랐다. 교계도 14대 총선 당시 출가자로는 처음 장주 스님이 국회의원에 출마해 세간의 관심을 모은 적도 있었다.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 어디까지가 적정선이며, 종교권력의 본질은 무엇일까?

한국 종교의 양대 산맥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와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회장 김성은)가 함께 종교권력을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기회를 얻는다.

'현대사회와 종교권력'을 주제로 열리는 제3회 불자·기독교자 교수 공동학술대회는 4월 18일 오후 1시 성공회 서울대성당(서울시청 옆)에서 열린다. 학술대회는 역사적 조명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제1주제 '역사를 통해 본 종교권력'과 오늘날 각 종교의 폐해적 요인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점검하는 제2주제 '한국사회의 종교권력'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대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불교에서는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가 '불교에서 본 종교권력'을 주제로 초기불교부터 현재까지 불교와 국가간 관계를 조명하고, 김경집 교수(진각대)가 '현대 불교와 종교권력'을 주제로 해방 이후부터 종단 내 갈등에 대해 발표한다. 기독교에서는 손규태 교수(성공회대)가 '기독교에서 본 종교권력'과 이진구 교수(호남신



4월 18일 '현대사회와 종교권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여는 한국교수불교연합회 소속 남궁옥 교수(동국대), 이인자 명예 교수(경기대), 김용표 교수(동국대)와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소속 원경림(이화여대 강사)씨와 김은규 교수(성공회대)(사진 왼쪽부터)

대가 '현대기독교와 종교권력'을 발표한다.

3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김용표 교수(동국대)는 "초기불교는 권력을 부정하고 세속과 종교 사이에 거리를 뒀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종교사에서 보면 성스러운 것이 타락할 때 종교적 본질이 되돌아가려는 역동성이 발휘됐다"면서 이를 '성(聖)과 속(俗)의 변증법'이라 표현하며 대승불교운동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종교권력의 정치화, 금권화, 대형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 종교집단의 권력화에 따른 사회병폐 진단과 종교의 비종교화에 대한 극복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회장 김성은 교수(성공회대)도 "개신교도 로마제국의 공인(313년)과 동시에 권력화됐다. 이후 개신교는 십자군 전쟁과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논리로 발전했다"면서 종교의 정치화는 국가·민족간 전쟁으로까지 치달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자·기독교자 교수 공동학술대회'는 2005년 종교 지성인간 대화의 필요에서 시작됐다. 2006년 창시자에 대한 조명 차원에서 '인류의 스승으로서의 붓다와 예수'를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열었고, 2007년 제2회 학술대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해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인·사회적 차원에서의 구원과 해탈을 논했다.

이번 제3회 학술대회는 제1회와 제2회에 걸친 이론적 대화를 실천적 대화로 전환하는 첫시도로 종교계에 자성과 초발심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져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혜장 스님과 다산 선생은 무슨 말 나눴나

강진문사고전연구소 '다산과 혜장' 발간

조선 후기 불교와 유교의 두 거장, 백련사 주지였던 애암 혜장 선사(1772~1811)와 대표적 실학자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시와 글이 책으로 발간됐다.

강진문사고전연구소(소장 양광식)이 발간한 <다산과 혜장>은 혜장 선사와 다산의 인연이 시작된 1805년 4월부터 백련사와 다산초당을 사이에 두고 6년간 주고받았던 시와 글을 고스란히 담았다.

혜장과 다산의 만남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반암 체제공(1720~1799)이 혜장의 스승이자 화엄의 종주였던 유일 스님(1720~1799)에게 다산을 소개했고, 유일 스님이 다산을 혜장 스님과 소개해 이뤄졌다.

책은 혜장 선사의 "마음평안 얻는 일, 누가 해낼까, 극락한 세계는 이만큼 들었다"와 다산의 "시기가 적절하고 알맞게 힐쓰라"는 등의 혜장과 다산의 마음 공부 하는 법과 사상은 물론 유일 스님



의 "열불하는 마음은 죽은 후에도 초연히 드러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등의 시문도 담았다.

양광식 소장은 "생전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학문의 도리를 다했던 선각자들의 뜻을 조명하고 싶었다. 민중을 위한던 고귀한 이들이 정신이 오늘에 현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12)불교미술사학회

tongdomuseum.or.kr

신진 불교미술학자 위한 연구학회

불교미술사학회(회장 범하)는 2003년 10월 한국 불교미술의 체계적 연구를 통해 미술사학 및 연구방법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됐다. 불교미술사학회는 조각, 공예, 회화, 건축 등 불교미술 분야를 망라한 물론 청년연구자들의 연구성과 소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학회 사무실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위치하며, 회원은 정회원·일반회원·특별회원·평생회원으로 나뉜다. 학술대회는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열리며, 학술지 <불교미술사학>은 범하 스님 화갑기념 특별 논문집으로 2007년 11월 제5집까지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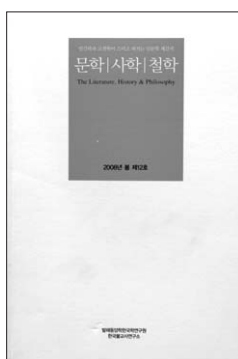
학회장을 맡고 있는 범하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장, 성보문화재단연구소장,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교계 문화재 전문가다. 불교미술사학회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범하 스님의 원력인 신진 연구자들의 왕성한 연구활동이 더해져 불교문화재에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교계와 학계의 중론이다.

2007년 성보문화재단연구소(소장 범하)의 한국 불화 연구 20년 회향을 기념한 <한국의 불화> 전40권을 완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학회는 4월 11~12일 제11회 학술대회를 통도사에서 개최한다. (055)384-0020

조동섭 기자

'문학·사학·철학' 범호출간

인간학과 고전학의 대중화를 위한 인문학 계간지 <문학·사학·철학> 범호가 출간됐다. 이번호에는 정성우(동국대 대학원)씨의 '고려말 <석사여래행적>에 대하여', 이성은 대표(경우서적·동국대 박사과정)의 '심경 반야주와 천수주의 독송음 고' 등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에 걸친 13편의 글이 실렸다. 부록으로 인문분야 200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목록을 수록했다. (02)2260-3583



조동섭 기자

전북 문화재 보수공사 이래도 되나?

원형 크게 훼손, 일부 문화재 가치 상실

전북 도내 문화재 보수 공사가 규정에 맞지 않게 시행돼 일부 문화재의 원형이 크게 훼손됐거나 문화재 가치를 상실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200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문화재 공사 및 보존관리 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71건을 지적하고 10건은 재시공조치, 6억7700만원은 회수 및 감액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했다.

정읍 송산사는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4점의 벽화와 단청은 원형을 보존해

야 함에도 문화재적 가치 등의 검토 없이 전체를 철거해 개축함으로써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했다.

김제 흥복사는 지난 2005년 화재로 훼손된 목조삼존불 좌상 수리보고서를 200부 작성·간행할 예정이었지만 설계서의 복사본 5부만 제출하고 준공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부분의 보수공사에서 수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다.

한편 익산 미륵산성, 위봉산성 등 4건의 산성 보수공사는 적시적 살기로 시공해야 하나 적시적 채우는 방식으로 시

공했고, 남원 광한루원과 완월정, 정문의 단청공사는 수축성이 좋은 아교 대신 합성수지 접착제를 사용해 시공했다.

지붕공사도 보토나 강화다짐을 시공해야 방수, 단열이 보장되지만 보토를 누락한 경우가 9건이나 됐고, 벽체 회백바르기를 시멘트 몰탈과 콘크리트로 대신해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했다.

전북도 백승기 기술감사담당은 "공무원들의 문화재관련 전문지식 부족과 개·보수업체들의 경제성 논리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며 차후 전문가를 초빙한 현장교육 및 문화재 보수업체에 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부장

보우승가회 입장 발표문

한국불교 태고종 보우 승가회는 2001년 6월 18일에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념을 실천하며, 불조의 해명을 이어서 종단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매년 선암사에서 여름 수련법회와 선암사 강원 학인 장학금 지원 사업, 동방불교 대학 장학금 지원 사업, 보우 승가대학 설립 운영 사업들을 하여 왔으며 한국불교 태고종이 불조의 해명을 이어 청정한 종단이 되기를 본원 했고 또한, 현재도 총무원장의 독단적인 행각에 종무행정이나 종단 내의 속사정을 깊이 있게 모르시는 대다수의 종도들을 대신하여 강한 책임감과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불교 태고종을 지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종도들께서 애증하는 마음으로 간혹 보우 승가회를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보우 승가 회원들은 총무원장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 봐 왔기에 부종수교의 간절한 발원으로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또는 누군가가 해야 할 말을 빼를 짚는 마음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보우 승가회가 본의 아니게 종도 여러분께 참회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적해 주십시오. 보우 승가회의 문호는 종단과 종도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종도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듯이 지금 우리 종단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행의 실천으로 자성을 청정히 하고 불법 효보에 온 힘을 기울여 앞으로 한국 불교계를 이끌어 나갈 도제 양성을 위한 교육 불사에 매진해야 할 한국 불교의 정통 종단에서 총무원장은 신론 방송등의 매체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가십거리가 되고(종단의) 행정은 투명하지 못하여 각종 비리와 의혹이 제기되어 우리

종도들은 물론이고 다른 종단의 승려나 불자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는 실정입니다.

그러하여 지금의 이 혼란한 상황이 종단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데 총무원장은 과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근본 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진정으로 불교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국민과 종도들로부터 땅에 떨어진 종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총무원장은 지금 제기된 각종 부정 비리 의혹을 무자정 덮으려고 궁색한 변명만 하지 말고 객관적 이면서 누구나 신뢰 할 수 있는 공정한 기관에 의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일련의 애증 행위를 터무니없이 해중, 훼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안됩니다.

해중은 삼보 정재를 사사로용 욕심에 헛되어 남비하거나 승려다운 자질을 갖추지 못해 불교나 종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고, 훼불은 종단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짊잡고 이교도들에게 사찰을 매각하여 삼보를 유되게 하는 것이지 종단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부종수교의 간절한 서원에서 나오는 울바르고 진실한 목소리가 결코 해중이나 훼불이 아닌 것입니다.

종도 여러분! 보우 승가회가 이렇게 간절히 종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삼계화택에서 정진없이 뛰노는 아이들을 구하려는 장자의 마음이고 여여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자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보우 승가회는 불퇴전의 의지로 자성을 밝힘과 동시에 청정한 종단 구현을 이룩해서 어떤 종단에도 뒤처지지 않고 만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한국불교 태고종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3월 27일

보우 승가회 회장 도산 합장

제10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10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 주제	자유 주제	
진각종 교학	2 편	① 참회의 원리(原理)와 사상(事相)에 대하여	제한없음	지정 주제 내용 지정 주제공모취지 www.jingak.or.kr 진각논문대상 공모 광고에서 다운로드
불 교 일반	3 편	② 진언수행과 염불수행에 대하여		
밀 교 일반	3 편			

- ▶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 진행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 (소정 양식·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공모일정 : 접수 마감 - 2008년 5월 16일(금요일)
당선작 발표 - 2008년 6월 19일(목요일) 예정
당선논문발표회 - 2008년 11월 14일(금요일) 예정
- ▶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500만원), 선정 7편(편당200만원)
-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접수 처 :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합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e-mail : suhyun@jingak.or.kr / yongdae49@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전송 (02)913-0135